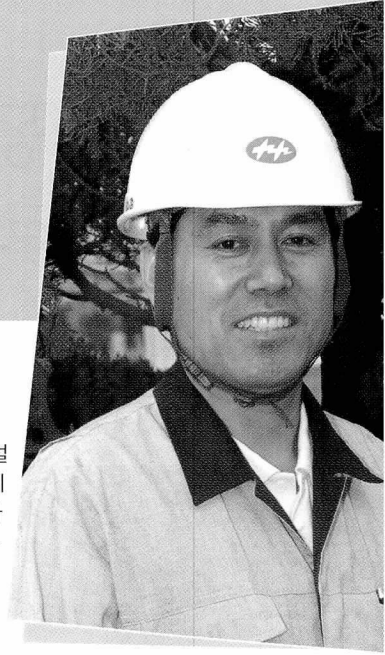


#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안전

(주)한화 구미공장 이 덕 화 안전과장



안전의 원칙과 절차는 융통성을 부여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금요일 아침, 나는 구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숨 막히게 더운 날씨로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벌써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한가로이 기차 바퀴와 레일이 들려주는 단조롭지만 경쾌한 소리에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하염없이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렸을 적 버튼을 누르면 풍경이 변하던 사진기 모양의 장난감이 생각났다. 한참을 달려 이내 구미에 도착했다.

**무재해 10배수 달성, 모든 근로자의 참여와 관심으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덕화 안전과장은 올해로 17년 동안 안전업무를 해 오고 있다. 1962년에 경북 군위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대구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전기공학도로서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온 후,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Q.A(품질보증)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각 로트에서 생산된 완제품 TV를 샘플링하여 신뢰성 테스트를 전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커다란 브라운관이 달린 TV를 인력으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근골격계질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중량물 취급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었다며 웃는다. 그가 안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2년이 지난 후 사내 안전관리팀이 신설, 부서 이동을 희망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평소 어려모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였고, 좀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안전업무는 그리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2년의 실무 경험, 그것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 밖에 없었던 그는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지했다. 어떤 곳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발로 뛰는 것이었다. 각 안전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따라 다니면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현장을 돌아다니며 쓰이는 기계의 동작원리부터 위험점들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이 쌓여갈 즈음, 공장설립이후 가장 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소한 작업자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폭발사고로 이어진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결속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당시 기억을 떠올린다.

이제 세월이 흘러 올 11월 29일이면 무재해 10배(3,080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뿐이라며 그 동안 팀원과 모든 근로자들이 열심히 안전에 대한 관심과 회사의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큰 것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덕화 안전과장, 그의 바람이 올해 무사히 달성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